

# 柳宗元の 창작 의식과 산문의 성취

洪承直

〈목 차〉

- |                  |                |
|------------------|----------------|
| 1. 서론            | (3) 다양한 문체의 창작 |
| 2. 창작 의식과 산문의 성취 | (4) 문학적 영역의 확대 |
| (1) 사회적 효용의 추구   | 3. 결론          |
| (2) 내용과 형식의 겸비   | 참고문헌           |

## 1. 서론

韓愈와 柳宗元에 이르러 성공했다고 일컬어지는 唐代의 古文運動이 문체·문풍·언어 등을 혁신한 운동이라는 점은 많은 연구자들이 밝혔는데,<sup>1)</sup> 이 때 혁신의 대상은 주로 駢文을 일컫는 것이었다. 즉 화려한 수식과 對偶·聲律을 추구하는 駢文의 기풍을 배격하고, 평이한 언어로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문장을 창작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론의 측면에서 보면, 韓愈와 柳宗元의 '문장의 내용 중시'는 남북조 시대 말기부터 隋·初唐·盛唐을 거쳐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이론을 계승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엄밀한 의미에서 그들은 駢文 자체를 완전히 배척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그들이 산문을 창작할 때 駢文의 가장 중요한 서술 기법인 對偶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를 증명한다.

1) 吳小林, 《柳宗元散文藝術》, 1쪽·羅宗強, 《隋唐五代文學思想史》, 234쪽~273쪽 등.

긍정적인 측면에서 駢文은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소화 흡수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산문의 성취를 문장의 '내용과 형식의 경중 관계' 즉 '駢文과 산문의 대립 관계'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것은 단편적인 견해이다. 이들의 산문의 성취는 중국의 산문이 기록적 실용적 단계를 넘어서서 小品化 隨筆化의 방향으로 즉 문학의 방향으로 발전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룩한 성취를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에 중점을 두어 柳宗元의 창작 의식과 산문의 성취를 네 가지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 2. 창작 의식과 산문의 성취

### (1) 사회적 효용의 추구

중국 역대 문인의 저술 활동에서 중심이 되었던 창작 의식은 '立言'에 있었다. 학문과 덕행을 갈고 닦는 것이란 일차적으로 經世濟民의 경륜을 갈고 닦는 과정으로 보았으며, 예외없이 현실 정치에 직접 참여해서 갈고 닦은 經世濟民의 경륜을 펼쳐 '立功'할 기회를 기다렸다. 여러가지 상황과 조건을 놓고 볼 때 '立功'의 가능성이 희박해진 경우에 이차적으로 '立言'에 뜻을 두었다. 柳宗元 역시 예외는 아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가 살던 당시에 뜻을 이루지 못하면 반드시 후세에 이름 얻기를 바랬나니, 옛날에 저술 활동을 한 사람들은 '두 이와 같습니다.'<sup>2)</sup>

나는 문장을 지은 지가 오래 되었네. 그러나 내심 문장을 짓는 것을 하찮게 여기어 힘을 쓰지 않았으니, 문장을 잘 짓는 것은 그저 바둑이나 장기를 잘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했기 때문이지. 그래서 長安에 있

2) 《柳河東全集》，卷 30，〈寄許京兆孟容書〉：『賢者不得志於今，必取貴於後，古之著書者皆是也。』\* 이후 《柳河東全集》에서 인용할 경우에는 그 卷數와 篇名만을 밝힘.

을 때는 이것으로 명예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사실에 적용하여 시대에 도움이 되고 만물에 혜택을 주는 일을 道로 삼았었지. 죄인이 된 이후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을 빼면 한가하여 할 일이 없기에 다시 문장을 짓게 되었는데. 그러나 시대에 도움이 되고 만물에 혜택을 주는 道를 지금 세상에 펼칠 수 없다면 마땅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남겨놓아야 할 걸세.<sup>3)</sup>

위와 같이 柳宗元은 文章의 이해득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貶謫 이후이며, 이 때 문장의 효용 및 내용과 형식에 대한 생각에 일대 전환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貶謫 이전에는 文章의 본질 및 역할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貶謫 이후 실제 정치를 통해 자신의 이상을 펼치고 立功을 실현할 가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立言에 뜻을 두어 ‘시대에 도움이 되고 만물에 혜택을 주는(輔時及物)’ 道를 문장을 통해 후세에 전하고자 했던 것이다. ‘輔時及物’의 道는 그가 현실 정치에 참여해서 실현하려 한 道이며, 따라서 문장의 사회적 효용을 추구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문장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그 하나는 ‘辭令褒貶’으로, 著述에 근본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導揚飄論’로, 比興에 근본하는 것이다.<sup>4)</sup>

‘辭令褒貶’은 ‘문장을 통해서 좋을 칭찬하고惡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 이는 ‘著述’에 근본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著述이란 앞의 인용문에서 밝힌 “현명한 사람은 그가 살던 당시에 뜻을 이루지 못하면 반드시 후세에 이름 얻기를 바랬나니, 옛날에 著述 활동을 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의 著述로 이해할 수 있겠는

3) 卷 31, 〈答吳武陵論非國語書〉: 『僕之爲文久矣。然心少之, 不務也, 以爲是特博奕之雄耳。故在長安時, 不以是取名譽, 意欲施之事實, 以輔時及物爲道。自爲罪人, 捨恐懼, 則閑無事, 故聊復爲之。然而輔時及物之道, 不可陳於今, 則宜垂於後。』

4) 卷 21, 〈楊評事文集後序〉: 『文有二道, 辭令褒貶, 本乎著述者也; 導揚飄論, 本乎比興者也。』

데, 이는 다름 아닌 문학의 사회적 효용을 강조한 것이다.

柳宗元이 문장에 '輔時及物'의 道를 담고자 했다는 것은 그가 산문의 사회적 효용을 추구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직접적인 증거이며, 여러 문체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 그가 특히 이 방면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우선 문장 곳곳에서 堯舜孔子의 道를 실현하는 것이 그의 이상임을 밝히고 있다.

堯舜을 맞이하여 스승으로 삼고자 하네.<sup>5)</sup>

다행히 堯舜孔子의 뜻을 구하기를 좋아하여 오직 얻지 못할까 근심하고, 다행히 堯舜孔子의 道를 행할 기회를 만나면 오직 마음에 차지 않을까 근심하고, 이러면서 天壽를 누리는 것은 께잡을 것이다. 구하여 얻고 행하여 마음에 차면 비록 요절한다 해도 그 누가 슬퍼하겠는가?<sup>6)</sup>

오직 中正信義를 뜻으로 하여, 堯舜孔子의 道를 일으켜서 백성들을 이롭게 편하게 하는 것에 힘쓰고자 했습니다.<sup>7)</sup>

이와 같이 柳宗元은 자신이 추구하는 道는 堯舜孔子의 道임을 곳곳에서 밝히고 있다. 따라서 그는 《詩》·《書》·《禮》·《易》·《春秋》 등의 經典을 학문의 근본으로 삼았고, 후학들에게도 經典의 습득을 바탕으로 학문 연마와 문학 창작에 임하고 아울러 治世에 적용할 것을 강조했다.<sup>8)</sup> 특히 문학 창작은 실행에 옮길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는 것을 강조하여, 문장을 잘 짓기 위한 방법으로 六經을 먼저 통독하고 그의 諸子·史書를 두루 참고할 것을 권하면서 그 요체는 孔子에게 있다고 했다.<sup>9)</sup>

5) 卷 2, 〈懲咎賦〉: 『道堯舜與之爲師。』

6) 卷 25, 〈送婁圖南秀才遊淮南將入道序〉: 『幸而好求堯舜孔子之志, 唯恐不得. 幸而週行堯舜孔子之道, 唯恐不慊. 若是而壽可也. 求之而得, 行之而慊, 雖夭其誰悲?』

7) 卷 30, 〈寄許京兆孟容書〉: 『唯以中正信義爲志, 以興堯舜孔子之道利安元元爲務。』

8) 卷 25, 〈送徐從事北遊序〉: 『苟聞傳必得位, 得位以詩禮春秋之道施於事, 及於物, 思不負孔子之筆舌。』

이런 바탕 위에서 그가 주장하고 실천하려 한 방법은 ‘實事求是’였다. 師道論을 논한 〈答嚴厚與秀才論爲師道書〉에서 “내가 피하려는 것은 명분이요, 염려하는 것은 그 실제이니, 실제는 하루라도 잊어서는 안된다”<sup>10)</sup>고 한 것이나 虛飾을 비판한 寓言을 많이 창작한 점도 그가 매사에서 ‘實事求是’를 추구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는 堯舜孔子의 道를 輔時及物의 道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實事求是 정신에 입각하여 輔時及物에 해악을 끼친다고 여겨지는 당시 사회의 갖가지 그릇된 인식과 폐단을 문장을 통하여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하늘은 권선징악의 의지를 지니고 인간의 선악에 대해 賞罰을 행한다’는 미신적인 세계관에 반대하여 ‘天地·元氣·陰陽은 모두 성질상 열매나 草木 등과 다를 바 없는 자연 현상이며, 따라서 人事의 存亡得喪도 이런 天地·元氣·陰陽 등의 자연 현상과는 賞罰의 관계가 없다’<sup>11)</sup>고 주장함으로써 자연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세계관에서부터 實事求是의 정신을 보여준 것을 중심으로 論說의 거의 모든 작품이 잘못된 세계관으로부터 파생된 갖가지 그릇된 정치 제도·역사 의식·윤리 의식 등을 비판한 것이다. 또한 論說 이외에 傳記·寓言·書信·贈序 등에서도 문장의 사회적 효용을 추구했던 그의 창작 정신이 폭넓게 실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시국에 대한 직접적인 평론과 비판, 사회의 불합리에 대한 간접적인 폭로와 풍자 등을 다양하게 담았기 때문이다. 앞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이는 한편으로 ‘문장을 통한 輔時及物의 道의 실현’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柳宗元の 창작 활동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9) 卷 34, 〈報袁君陳秀才避師名書〉: 『大都文以行爲本, 在先誠其中. 其外者, 當先讀六經. 次論語孟軻書皆經言, 左氏國語莊周屈原之辭, 稍采取之, 數梁子太史公甚峻潔, 可以出入. …… 其歸在不出孔子.』

10) 卷 34, 〈答嚴厚與秀才論爲師道書〉: 『僕之所避者, 名也, 所憂者, 其實也. 實不可一日忘.』

11) 卷 16, 〈天說〉: 『彼上而玄者, 世謂之天. 下而黃者, 世謂之地. 渾然而中處者, 世謂之元氣. 寒而暑者, 世謂之陰陽. 是雖大, 無異果蠃癘痔草木也. …… 天地, 大果蠃也. 元氣, 大癘痔也. 陰陽, 大草木也. 其烏能賞功而罰禍乎? 功者自功, 禍者自禍, 欲望其賞罰者大謬. 呼而怨, 欲望其哀且仁者, 愈大謬矣.』

## (2) 내용과 형식의 견비

문학 및 여타 모든 사회 현상과 마찬가지로, 중국 산문의 변화 발전 과정은 내용과 형식의 경중 관계의 변천 양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익숙한 용어를 빌면, 문(文)과 도(道) 및 상호 관계에 대한 이해와 평가 또는 어느 한쪽의 중시 경향으로 말미암아 시대와 작가에 따라 다양한 표현 기법이 태어나고 창작 경향과 풍격 등이 형성된 것이다.

柳宗元의 창작 의식을 대표하는 柳宗元 자신의 언급으로 '文以明道'가 있는데, 이는 흔히 '문장의 내용 중시' 이론으로 파악되어 왔다. 문장의 내용 중시 즉 문장의 사회적 효용을 중시했던 측면에서 柳宗元의 산문은 그의 사상적 기반의 핵심을 이루는 實事求是 정신을 담고자 했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文以明道를 문장의 내용 중시 이론만으로 해석한다면 사실 이는 그의 독창적인 이론이 아니라 남북조 시대 말기부터 隋·初唐·盛唐을 통하여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것을 계승한 것에 불과하다.

柳宗元의 文以明道 이론을 좀 더 주의깊게 살펴보면, 그는 문장의 내용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담는 그릇 즉 형식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聖人の 말은 道를 밝히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들은 (문장을) 道에서 찾으려고만 할 뿐 그 말을 소홀히 여긴다. 말이 세상에 전해지는 것은 반드시 글을 통해서이다. 道는 말을 빌어 밝혀지며 말은 글을 빌어 전해진다.<sup>12)</sup>

또한 앞서 살펴본 〈答吳武陵論非國語書〉에서도 “시대에 도움이 되고

12) 卷 34, 〈報崔黯秀才論爲文書〉: 『然聖人之言, 期以明道, 學者務求諸道而遺其辭. 辭之傳於世者, 必由於書. 道假辭而明, 辭假書而傳.』

만물에 혜택을 주는 道를 지금 세상에 펼칠 수 없다면 마땅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남겨놓아야 한다”고 하여, 輔時及物의 道를 문장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포부를 밝힌 다음 “말을 하되 수식을 하지 않으면 사장될 것이다”<sup>13)</sup>라고 한 것을 보면 柳宗元은 문장의 내용 뿐 아니라 형식에 대해서도 꾸준한 연마와 신중한 선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柳宗元의 창작 의식에서 중요한 특징은 ‘내용과 형식의 견비’의 추구이다. 그가 문장의 형식에도 중점을 두게 된 것은 ‘문장에는 두 가지 갖출 것이 있다(文有二道)’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이다.

비록 그 말투가 속되고 투박해도 충분히 문장의 효용을 거둘 수는 있다. 그러나 文采가 부족하다면, 지금 듣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감동을 줄 수도 없고, 후학들에게 보여줄 만한 것도 없어서, 立言을 해도 오래 가지 못하고 사장될 것이니, 君子는 그런 길을 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作者는 근원인 내용을 보존하되 반드시 文采의 구비를 통하여 道가 여기서 나타나게 해야 한다.<sup>14)</sup>

문장의 효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문장의 수식을 무시할 수 없으며, 文采에도 충분히 중점을 두어야 함을 인식한 것이다. 특히 문장의 수식을 중시하는 이유를 수사적 기교를 자랑하거나 문장의 형식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에 두지 않고 ‘지금 듣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감동을 주며, 후학에게 무언가를 보여줌으로써 영원히 사장되지 않는 것’에 두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사실 문장은, 그 내용의 유익함이나 진실성 여부는 접어두고, 古수를 통하여 ‘심금을 울리고 감동을 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世人의 주목을 받기 쉬었으니, 柳宗元은 그 예로 《國語》를 들고 있다.<sup>15)</sup> 따라서, 내용이 허무맹랑한 것이 많아 혹세무민할 우려가

13) 卷 31, 〈答吳武陵論非國語書〉: 『……言而不文則泥。』

14) 卷 21, 〈楊評事文集後序〉: 『雖其言鄙野, 足以備於用. 然而闕其文采, 固不足以竦動時聽. 誇示後學, 立言而朽, 君子不由也. 故作者抱其根源, 而必由是假道焉。』

15) 卷 31, 〈與呂道州溫論非國語書〉: 『嘗讀國語, 病其文勝而言老, 好詭以反倫. 其道舛逆, 而

있다는 비판을 서슴치 않았던 “《國語》를 참고하여 흥취를 넓게 했다”<sup>16)</sup>고 하여, 문장은 《國語》와 같이 독자의 환심을 끄는 요소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柳宗元의 이러한 태도는 작가들이 문장의 내용 또는 효용에만 지나치게 중시하면 자칫 문장의 수식을 무시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經’과 ‘文’을 분리하여 다루었다. “聖인이 지었기 때문에 ‘經’이라고 하며, 사람의 재주로 지었기 때문에 ‘文’이라고 한다”<sup>17)</sup>고 하여 문장이란 작가의 재주에서 나오는 것임을 파악한 것이다. 따라서 經은 聖인이 지은 것이므로 文采에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읽혀 영원히 전해지며, 文은 인간이 짓는 것이므로 내용 못지 않게 외형적인 꾸밈도 좋아야만 사람들이 읽고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先秦의 문장을 모범으로 삼되 주로 그 내용적인 측면을 본받고 兩漢·魏晉의 문장에서도 그 형식의 아름다움을 본받을 것을 주장했다.<sup>18)</sup> 그 방법은 ‘論說·遊記·傳記·寓言’ 등 여러 문체를 통해 사회의 시비와 장단을 비평하는 것이면서 수필의 요소인 抒情·敘事·敘景·說理를 담아 예술성을 높이는 것이었다.<sup>19)</sup>

### (3) 다양한 문체의 창작

柳宗元의 창작 경향 중에서 기타 작가들과 구별되는 두드러진 특징은 寓言을 많이 남겼다는 것이다. 수량으로 보아도 많은 작품을 남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으로 보아도 사상가들은 자신의 사상의 친근감있는 이해를 위해 또한 정론가들은 자신의 논리 전개에 유리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 修辭의 일종으로 사용했던 寓言을 그 수사적인 기능에서 독립시켜

學者以其文也，咸嗜悅焉，伏膺呻吟者，至比六經。」

16) 卷 34, 〈答韋中立論師道書〉: 「……參之國語以博其趣, ……」

17) 앞과 같음: 「作於聖, 故曰經; 述於才, 故曰文。」

18) 卷 34, 〈答韋中立論師道書〉 및 卷 21, 〈柳宗直西漢文類序〉 참조.

19) 許世旭, 《中國隨筆小史》, 89쪽~90쪽.

하나의 문체로 정립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는 寓言이 환영받는 상황은 아니었다.

내가 蠻夷의 땅에 살게 되면서부터 중앙의 인물들과 서신을 왕래한 적이 없었다. 남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가끔 韓愈가 〈毛穎傳〉을 지었다는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지 말해주지는 않고 혼자 한바탕 웃고 괴상하게 여길 뿐이어서, 나는 오랫동안 그 내용을 보지 못했다. 楊誨之가 오면서 비로소 그 글을 가지고 와서 읽어보니, 마치 용이나 뱀을 잡고 호랑이나 표범과 싸우면서 긴박하게 대치한 상태여서 잠시라도 힘을 늦추면 안될 듯한 기세가 있었다. 참으로 韓愈가 문장에 괴력을 지녔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다.<sup>20)</sup>

韓愈의 〈毛穎傳〉은 붓을 의인화한 傳體 산문으로, 寓言을 사용한 것이다. 위의 내용을 보면 〈毛穎傳〉이 당시 문인들에게 대단한 화제거리가 되었으며, 문자로 유희를 일삼았다는 이유로 조소와 비난을 받았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毛穎傳〉에 대한 조소와 비난의 분위기가 永州에 있는 柳宗元에게 전해질 정도라면 그 분위기의 심각함은 짐작할 수 있다.

21) 이런 분위기에서 유일하게 韓愈를 변호한 사람은 柳宗元이었다.<sup>22)</sup>

그대(楊誨之)가 韓愈의 〈毛穎傳〉을 가지고 왔는데, 나는 그 글이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 염려되지만, 이에 몇 마디 함으로써 이전의 聖人도 반드시 '해학'을 죄악시하지는 않았음을 알게 하려 한다.<sup>23)</sup>

20) 卷 21, 〈讀韓愈所著毛穎傳後題〉: 『自吾居夷, 不與中州人通書. 有來南者, 時言韓愈爲〈毛穎傳〉, 不能舉其辭, 而獨大笑以爲怪, 而吾久不克見. 楊子誨之來, 始持其書, 索而讀之, 若捕龍蛇, 搏虎豹, 急與之角而力不敵歟. 信韓子之怪於文也.』

21) 《舊唐書》, 列傳 110, 韓愈: 『…… 又爲〈毛穎傳〉, 譏戲不近人情, 此文章之甚駭聽者.』

22) 《韓昌黎文集校注》, 卷 8, 〈毛穎傳〉題注: 『公作此傳, 當時有非之者. …… 舊史亦從而爲之言曰: “譏戲不近人情.” 是豈有識者哉? 柳子厚豈下人者, 乃獨以爲奇. 既書其後, 又〈答楊誨之書〉云: “足下所持韓生〈毛穎傳〉來, 僕甚奇其書, 恐世人非之, 今作數百言, 知前聖不必罪佻也.” 云云, 則文章因自有知音者哉?』

23) 卷 33, 〈與楊誨之書〉: 『足下所持韓生毛穎傳來, 僕甚奇其書. 恐世人非之, 今作數百言, 知前聖不必罪佻也.』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이유는 그가 ‘해학’을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해학’ 역시 聖인이 배척하지 않았다. 《詩》에 “해학을 잘 하는 것이 남을 못살게 구는 것은 아니로다”라고 했고, 《史記》에도 〈滑稽列傳〉이 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에 유익하기 때문에 채택된 것이다.<sup>24)</sup>

〈毛穎傳〉의 해학에 대해 世人과 柳宗元의 찬반이 달랐다. 柳宗元은 이것도 세상에 유익한 것이라면 버리지 않고 잘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옳은 일임을 역설한 것이다. 이는 그가 문장의 다양한 표현 방식에 주의를 기울였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육수로 끓인 국·이슬로 빛은 술·제사 때 바치는 희생의 고기는 맛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맛있는 것이로되 또 기이한 작은 벌레·물풀·모과·배·귤·유자 등을 첨가한다. 쓴 맛·짠 맛·신 맛·매운 맛이 비록 입술을 쏘고 코를 비틀며 혀가 오그라들고 이빨이 짧게 해도 모두 그것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 유독 문장만 이와 다를 수 있겠는가?<sup>25)</sup>

기이한 작은 벌레·물풀·모과·배·귤·유자 등이 육수로 끓인 국·이슬로 빛은 술·제사 때 바치는 희생의 고기 등 천하일미의 음식을 더욱 맛나게 하고, 쓴 맛·짠 맛·신 맛·매운 맛이 입술을 쏘고 코를 비틀며 혀가 오그라들고 이빨이 짧게 해도 그것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듯이, 익살과 해학도 세상에 유익한 것이라면 배척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언어 문자의 독특한 맛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로 韓愈를 변론했다. 韓愈를 위한 변론은 곧 자신의 변론이다. 〈毛穎傳〉 한 작품으로 많은 조소와 비난을 받은 韓愈에 비하면 柳宗元은 〈毛穎傳〉과 같은 해학과 풍자를 담은 傳記와 寓言을 더욱 많이 창작했기 때문이다. 韓愈의 〈毛穎傳〉을 변론하

24) 卷 21, 〈讀韓愈所著毛穎傳後題〉: 「且世人笑之也, 不以其俳乎? 而俳又非聖人之所棄者. 詩曰: “善戲謔兮, 不爲虐兮.”, 《太史公書》有〈滑稽列傳〉. 皆取乎有益於世者也.」

25) 앞과 같음: 「大羹玄酒, 體節之薦, 味之至者, 而又設以奇異小蟲水草醴梨橘柚. 苦鹹酸辛, 雖甄吻裂鼻, 縮舌澁齒, 而咸有薦好之者. …… 獨文異乎?」

면서 보여준 寓言에 대한 柳宗元의 인식은 그가 장르의 다양화를 통해 문체 해방을 추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다. 그의 序跋 등에 나타난 평론에서 다양한 문체의 창작을 증시한 柳宗元의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柳宗元은 “西漢의 문장이 古文에 가까우면서 장엄하고 아름다웠다”<sup>26)</sup> 고 하여 후학들이 본받아야 할 문장의 모범을 賈誼·公孫弘·董仲舒·司馬遷·司馬相如 등으로 이어지는 西漢의 문장에서 찾을 것을 권했다.<sup>27)</sup> 그 이유는 “殷·周 시대 이전의 문장은 간략하고 조잡했으며, 魏·晉 시대 이후로는 번잡하고 화려했는데, 그 중간의 묘를 얻은 시대가 漢代이며, 東漢에 이르러서는 쇠퇴했기 때문”<sup>28)</sup>이라고 했다. 실제로 西漢은 先秦 시대의 《詩經》·《楚辭》 및 哲理 산문·역사 산문·政論 산문을 계승하여 辭賦·詩歌 등의 운문과 詔令·奏議·傳記 등의 단편 산문으로 발전시킨 시기이며, 그의 序跋·碑誌 등 새로운 문체가 출현한 시기이다. 柳宗元이 西漢의 문장을 모범으로 제시한 이유는 지나치게 간략하지 않고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으면서 문체가 다양했기 때문이다.<sup>29)</sup>

문장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그 하나는 ‘辭令褒貶’으로, 著述에 근본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導揚諷諭’로, 比興에 근본하는 것이다. …… 이 두 가지는 그 취지를 살펴보면 서로 괴리된다. 그러므로 문장을 짓는 사람들은 항상 한 가지에만 치우쳐 뛰어나게 되고 두 가지를 겸한 사람이 드물다. 재능이 있어 한 분야에 훌륭한 성취를 이룬 경우를 ‘藝成’이라 한다. 비록 옛날 文雅가 흥성했던 시대에도 두 가지를 겸하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날 수는 없었다.<sup>30)</sup>

26) 卷 21, 〈柳宗直西漢文類序〉: 『文之近古而壯麗, 莫若漢之西京.』

27) 앞과 같음: 『…… 當文帝時, 始得賈生明儒術, 武帝尤好焉, 而公孫弘·董仲舒·司馬遷·相如之徒作, 風雅益盛, 敷施天下, 自天子之公卿大夫士庶人, 咸通焉.』

28) 앞과 같음: 『殷周之前, 其文簡而野; 魏晉以降, 則纒而靡; 得其中者漢氏, 漢氏之東, 則既衰矣.』

29) 앞과 같음: 『…… 於是宜於詔策, 達於奏議, 諷於辭賦, 傳於歌謠.』

30) 卷 21, 〈楊評事文集後序〉: 『文有二道, 辭令褒貶, 本乎著述者也; 導揚諷諭, 本乎比興者』

文章의 종류를 ‘著述’의 문장과 ‘比興’의 문장으로 대별했다. ‘著述’의 문장은 산문 계열의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높고 웅장하고 넓되, 말이 바르고 논리가 갖추어져 있어서, 책으로 만들어 보관할 만한 것”<sup>31)</sup>이라고 하였으며, ‘比興’의 문장은 운문 계열의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맑고 아름답되, 말이 부드럽고 뜻이 아름다워, 읊조리기에 좋은 것”<sup>32)</sup>이라고 했다. 문장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각각의 문장은 서로 다른 풍격과 효용을 가진다는 점을 파악한 것이다. 따라서 그는 다양한 문체를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우수한 작가라고 평론했다.

唐代 이래 이런 경지에 이르렀다고 보아 손색이 없는 사람은 梓潼의 陳子昂이다. 그 후 張說은 著述의 문장에 힘쓰고, 여력으로 比興의 문장을 갈고 닦았지만 성취하지 못했고, 張九齡은 比興의 문장에 힘쓰다가 틈틈이 著述의 문장을 추구했지만 양자를 겸비하지는 못했다. 그 나머지는 각기 한 쪽만을 추구하여 서로 등지고 달리더니 갈수록 멀어졌다. 문장을 兼全하기가 이토록 어려운 것이다.<sup>33)</sup>

陳子昂·張說·張九齡 등의 장단점을 ‘著述’의 문장과 ‘比興’의 문장의 兼全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즉 ‘著述’의 문장과 ‘比興’의 문장에 모두 능숙해야 우수한 작가라고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楊君(楊凌)께서는 젊어서 詩歌로 당세에 명성을 날리셔서, 그 찬란하고 극

也. …… 茲二者, 考其旨義, 乖離不合. 故兼筆之士, 恒偏勝獨得, 而罕有兼者焉. 厥有能而專美, 命之曰藝成. 雖古文雅之盛世, 不能并肩而生.』

31) 앞과 같음: 『著述者流, …… 其要在於高壯廣浮, 詞正而理備, 謂宜藏於簡冊也.』

32) 앞과 같음: 『比興者流, …… 其要在於麗則清越, 言暢而意美, 謂宜流於謠誦也.』

33) 卷 21, 〈楊評事文集後序〉: 『唐興以來, 稱是選而不作者, 梓潼陳拾遺. 其後燕文貞以著述之除攻比興, 而莫能克, 張曲江以比興之隙窮著述, 而不克備. 其餘各探一隅, 相與背馳於道者, 其去彌遠. 文之難兼, 斯亦甚矣.』

히 훌륭한 詩句들이 문인들 사이에 낭송되고 江湖에 가득 퍼져 京師에까지 이르렀다. 만년에는 문체를 두루 깨달으시어 敘述이 더욱 깊은 경지에 이르렀고, 학식이 풍부하고 심원하여, 재주가 그칠 줄 모르고 솟아나와, 그 뛰어난 원숙한 기풍이 나이와 더불어 증가했다. 이런 경지를 얻고 몇 년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는데, 말년에 지으신 것은 더욱 훌륭했다. 〈鄂州新城頌〉·〈諸葛武侯傳論〉과, 梓潼 陳衆甫·汝南 周恩·河東 裴泰·武都 符義府·太山 羊士譔·隴西 李鍊 등을 진송하는 여섯 편의 贈序와, 〈廬山禪居記辭〉·〈李常侍啓〉·〈遠遊賦〉·〈七夕賦〉 등은 모두 문장 중의 걸작이라 할 만한데, 陳子昂의 뒤를 이어 문체를 완비한 작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다.<sup>34)</sup>

위와 같이 柳宗元은 詩歌 뿐만 아니라 頌贊·論辨·贈序·辭賦 등 다양한 문체를 창작했다는 점에서 楊凌의 문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한 永州에서 같이 貶謫 생활을 하면서 친하게 된 吳武陵이 父親 문집의 서문을 부탁하자 “그의 詞賦에는 가식과 무도를 징계하는 뜻이 담겨 있고, 그의 詩歌에는 王公大人과 사귀는 도의가 담겨 있고, 그의 誄誌弔祭에는 孝恭慈仁의 정성이 있어, 六經과 聖人의 큰 뜻을 밝히는 것이 많아서, 쓰기만 하면 법도가 되니 정말 불만하다”<sup>35)</sup>라고 칭찬했는데, 이 역시 吳武陵의 父親이 詞賦·詩歌·誄誌弔祭 등 여러 문체에서 다양한 내용과 풍격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다양한 문체의 창작을 주장한 柳宗元은 자신의 저술 활동에서도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즉 주제와 내용에 따라 각기 다른 문체를 선택하여 ‘辭令褒貶’과 ‘導揚諷諭’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書信·祭文·碑誌는 실용문에 속하기 때문에 문장가로서 많은 작품을 창작한 것이

34) 앞과 같음: 『若楊君者, 少以篇什著聲於時, 其炳耀尤異之詞, 飄謫于文人, 盈滿于江湖, 達于京師. 晚節備悟文體, 尤達敘述, 學富識遠, 才涌未已, 其雄傑老成之風, 與時增加. 既獲是, 不數年而夭, 其季年所作尤善. 其爲〈鄂州新城頌〉·〈諸葛武侯傳論〉, 餞送梓潼陳衆甫·汝南周恩·河東裴泰·武都符義府·太山羊士譔·隴西李鍊, 凡六序, 〈廬山禪居記辭〉·〈李常侍啓〉·〈遠遊賦〉·〈七夕賦〉, 皆人文之選已. 用是陪陳君之後, 其可謂具體者歟!』

35) 卷 21, 〈灑陽吳君文集序〉: 『其爲詞賦, 有成苟冒陵僭之志, 其爲詩歌, 有交王公大人之義, 其爲誄誌弔祭, 有孝恭慈仁之誠, 而多舉六經聖人之大旨, 發言成章, 有可觀者.』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그의 論說·遊記·傳記·寓言·贈序 등은 모두 확고한 창작 의식에 따라 기존의 문체에 독특한 개성을 발휘했거나 새로이 문체를 발전시킨 것들이다. 論說에서 보여준 탁월한 논리와 현실 비판, 傳記에서 보여준 深遠한 寓意와 풍자 의식 등이 기존의 문체에 독특한 개성을 발휘한 예라면, 贈序는 韓愈와 더불어 정착시킨 새로운 문체이며, 遊記와 寓言은 柳宗元에 의해 새롭게 발전된 문체이다. 이와 같이 그는 문체의 다양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보였거니와 실제 창작에서도 다양한 문체의 작품을 써냈던 것이다.

#### (4) 문학적 영역의 확대

唐代 뿐만 아니라 중국문학사 전체를 보더라도, 기존의 문체와 형식에 국한되어 산문을 쓰지 않고 새로운 형식을 추구하거나 새로운 문체를 개척하여 산문의 표현 영역을 넓힌 점에서, 즉 '문체의 자유화와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韓愈와 柳宗元의 산문이 이론 성취는 매우 컸다. 韓·柳 이전에도 산문이 융성한 시대가 있어서 언필칭 先秦과 兩漢을 일컫고 있지만, 先秦 시대에는 哲理 산문·역사 산문 등의 '학술적인 산문'과 詔令·奏議 등의 '실용적인 산문'이 주종을 이루었고, 이어 兩漢에는 書信·序跋·祭文·碑誌 등 여러 문체가 새로이 출현하거나 대대적으로 창작되기 시작했지만, 이들 역시 실용적인 산문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魏晉南北朝 시대에 이르러서 예술적 문장과 실용적 문장을 '文'과 '筆'로 구분하여 양자의 다른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산문이 본격적으로 문학적 예술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시기의 산문은 예술성을 지나치게 추구한 나머지 對偶·聲律에만 집착한 駢文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말았다. 산문이 내용과 형식 및 서술 기법 면에서 수필문학의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 기틀은 中唐의 韓愈와 柳宗元에 와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산문의 문학화·예술화'의 측면에서 볼 때 특히

柳宗元의 역할을 높이 사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sup>36)</sup>

柳宗元이 창작 이론이나 실제 창작에 있어서 '내용과 형식의 겸비'·'다양한 문체의 창작' 등을 추구한 것을 앞에서 살폈는데, 이는 한편으로 그의 산문이 문학적 예술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즉 '문장은 道를 밝히는 것'이라는 단순한 내용 중시 의식에서 나아가 '그 道를 어떻게 밝히는가'에 주의를 기울였고, 道를 밝히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임에 따라 주제와 내용에 맞는 적절한 문체를 선택하고 개발함으로써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매번 문장을 지을 때마다 감히 경솔한 마음으로 붓을 휘두르지 않았으니, 경박하여 남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감히 태만한 마음으로 쉽게 보지 않았으니, 느슨하여 엄밀하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감히 흥미한 기분으로 쓰지 않았으니, 분명하지 않고 잡될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감히 빠기는 기분으로 짓지 않았으니, 자대하고 교만할까 염려했기 때문이다.<sup>37)</sup>

韋中立에게 보내는 書信에서 위와 같이 자신은 '경솔한 마음'·'태만한 마음'·'흥미한 기분'·'빠기는 기분'으로 창작에 임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역으로 '신중'·'근엄'·'명철'·'겸허' 등의 자세로 창작에 임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누르는 것은 심오하게 하려는 것이요, 들어올리는 것은 분명하게 하려는 것이요, 성기게 하는 것은 통하게 하려는 것이요, 말을 아끼는 것은 절도있게 하려는 것이요, 세차게 퍼내는 것은 맑게 하려는 것이요, 굳게 보존하는

36) 張華 主編, 蒙萬夫·魯歌 副主編, 《中國現代雜文史》, 4쪽·朱世英·郭景春, 《唐宋八大家散文技法》, 49쪽·孫昌武, 《柳宗元傳論》, 338쪽·吳小林, 《柳宗元散文藝術》, 234쪽 등 참조.

37) 卷 34, 〈答韋中立論師道書〉: 『故吾每爲文章, 未嘗敢以輕心掉之, 懼其剽而不留也. 未嘗敢以怠心易之, 懼其弛而不嚴也. 未嘗敢以昏氣出之, 懼其味沒而雜也. 未嘗敢以矜氣作之, 懼其僣蹇而驕也.』

것은 무게있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내가 道를 부지하는 날개와 같이 여기는 바이다.<sup>38)</sup>

앞서 말한 창작할 때 피해야 할 네 가지 마음가짐 다음으로 위와 같이 ‘抑·揚·疏·廉·激而發·固而存’의 방법을 통하여 ‘與·明·通·節·清·重’의 풍격을 추구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비록 개념이 추상적이고 애매한 감이 있으나 수필 창작의 법전으로 일컬어진다.<sup>39)</sup> 이런 창작 태도를 통해 柳宗元이 산문을 실용화와 다양화의 단계를 넘어서 문학화와 예술화의 방향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역대 경전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나타난다.

《書》를 근본으로 삼아 그 질박함을 추구하고, 《詩》를 근본으로 삼아 그 향상됨을 추구하고, 《禮記》를 근본으로 삼아 그 마땅함을 추구하고, 《春秋》를 근본으로 삼아 그 결단성을 추구하고, 《易》을 근본으로 삼아 그 움직임을 추렸으니, 이는 내가 道를 취한 근원이다.

《穀梁傳》을 참고하여 기세를 엄하게 했고, 《孟子》·《荀子》를 참고하여 가지가 뻗도록 했고, 《莊子》·《老子》를 참고하여 우듬지를 자유로이 했고, 《國語》를 참고하여 흥취를 넓게 했고, 《離騷》를 참고하여 그옥함이 이르게 했고, 《史記》를 참고하여 깨끗함을 드러냈으니, 이는 내가 널리 미루어 서로 통하게 문장을 지은 바이다.<sup>40)</sup>

《詩》·《書》·《易》·《禮記》·《春秋》 등의 五經은 ‘道를 추구하는 근원’으로, 문장의 내용을 결정했으며, 그밖에 《孟子》·《荀子》·《穀梁傳》·《老子》·《莊子》·《國語》·《離騷》·《史記》 등의 장점을 취하여 문

38) 앞과 같음: 『抑之欲其與, 揚之欲其明, 疏之欲其通, 廉之欲其節, 激而發之欲其清, 固而存之欲其重, 此吾所以羽翼夫道.』

39) 許世旭, 《中國隨筆小史》, 90쪽.

40) 卷 34, 〈答韋中立論節道書〉: 『本之書以求其質, 本之詩以求其恒, 本之禮以求其宜, 本之春秋以求其斷, 本之易以求其動, 此吾所以取道之原也. 參之穀梁氏以厲其氣, 參之孟荀以暢其支, 參之莊老以肆其端, 參之國語以博其趣, 參之離騷以致其幽, 參之太史公以著其潔, 此吾所以旁推交通, 而以爲之文也.』

장을 완성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내용이 허무맹랑하다 하여 67가지 조목에 걸쳐 비판한 《國語》에서도 그 서술 기법을 참고하여 흥취를 넓게 할 정도로 柳宗元은 산문의 문학적인 표현에 힘을 기울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論說·遊記·傳記·寓言·贈序 등이 기존의 문체에 독특한 개성을 발휘했거나 새로이 문체를 발전시킨 예인데, 특히 柳宗元の 독창적인 성취는 論說·遊記·傳記·寓言 등에서 찾을 수 있다.

論說은 散文의 기본이며 가장 散文의인 문체이다. 先秦 시대에 散文의 주종을 이룬 것 중의 하나인 諸子百家의 說理 散文에서 이미 論說의 기초가 닦였다. 柳宗元은 先秦 시대 說理 산문의 바탕 위에다 논리에 있어서는 깊이있는 주제와 치밀한 논리의 전개·객관적인 타당성, 내용에 있어서는 비판성과 사상성을 각각 담았고, 수사에 있어서는 論說의 전개에 효과와 효용을 높일 수 있는 ‘設問·反問·對偶·排列·漸層’ 등의 수사 기법을 다양하게 구사하고 있다. 특히 論說을 통하여 볼 수 있었던 다양한 修辭와 서술 기법은 다른 다양한 문체를 창작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古文 중에서 ‘論說·辯議·原解·對問·非’ 등의 문장을 論說의 성격이 있다 하여 論辯類로 분류하지만 韓愈와 柳宗元을 예로 볼 때 韓愈의 〈雜說〉이나 柳宗元の 〈捕蛇者說〉·〈蠶說〉·〈鵝說〉·〈設漁者對智伯〉·〈晉問〉·〈愚溪對〉 등은 비유나 대화의 기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傳記體와 寓言體를 결합함으로써 수필성 산문으로 발전시켰다.

遊記는 僻地의 貶謫 생활에서 얻은 심신의 고통을 달래는 과정에서 창작되었다. 고통과 시름·분노와 절망 등의 갖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상황에서 永州와 柳州의 山水에서 발견한 曠闊의 美와 深奧의 美를 짧은 편폭에 담았으며 깊은 통찰력과 문장력이 돋보이며, 회화적 묘사와 청각적 표현의 효과를 뛰어나게 살렸으며 柳宗元 자신의 감정이 기탁되어 높은 문학적 성과를 거두었다.

傳記는 대부분 단순히 실존 인물의 사적을 전하는 것으로 한정하지 않고 托傳·家傳·假傳 등으로 변화 발전시켜 교훈·비판·풍자 등 다양한 효과

를 거두고 있음을 문학적인 성취로 지적할 수 있다. 〈宋淸傳〉·〈粹人傳〉·〈種樹郭囊駝傳〉 등의 托傳에서는 世人의 주목을 별로 받지 못하는 약장수(宋淸)·목수(楊潛)·식수쟁이(郭囊駝) 등 사회의 하층 인물의 비상한 행동과 능력을 설정하여 상층 인물의 무능과 어리석음을 폭로 풍자했다. 〈童區寄傳〉·〈河間傳〉·〈李赤傳〉 등의 家傳에서는 區寄·河間·李赤 등 어린 아이나 비정상적인 인물의 행적을 통해 唐代 사회의 암흑을 전달하고 있다. 假傳인 〈嬾蠟傳〉은 탐관오리의 전형을 창조함으로써 시대를 초월하여 풍자와 교훈의 효과를 전달하고 있다. 이들 傳記를 통해 인물을 설정하고 그 인물의 특정한 행위나 사건을 소개하는 행간에 작자가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어떤 윤리적 사상적 내용을 전달하거나, 당시 왕조의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인물의 행적을 소개함으로써 후세의 귀감을 세우거나 경종을 울리는 등 문학적 傳記로 발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柳宗元의 寓言은 풍자 문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의 사상적 핵심은 實事求是와 民本主義로 나타나는데, 당시의 여러 가지 그릇된 사회 현상을 개혁하고자 했던 혁신 정치가 실패로 돌아가자 저술 활동을 통하여 그의 이상을 문학 작품에 담고자 했다. 寓言이 현실에 대한 신랄한 폭로와 고발·강렬한 반어와 풍자의 성격을 띠고 있음이 이를 증명하는 하나의 예이다. 寓言이 문학으로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줄거리의 전개'와 '寓意의 보편성'이다. 즉 說理나 교훈의 보조 수단으로 몇 글자나 몇 구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시종일관 寓意的인 서술로 이어져야 하며, 일시적인 분노와 원망의 표출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여 교훈과 풍자의 효과를 주는 전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柳宗元은 寓言을 說理나 교훈의 보조 수단에서 독립시켜 하나의 문체로 창작했으며, 당시 사회의 여러 불합리한 모습을 풍자한 것이면서 그 풍자의 효과는 어느 사회에서나 인간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우수한 풍자 문학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論說·遊記·傳記·寓言 등을 통하여 산문이 실용적 단계에서

문학적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柳宗元의 문집 45卷 중에서 論·議·辯·行狀·對·問·答·說·傳·騷·弔·贊·箴·戒·銘·雜·題·序·記 등 15卷에 수록된 작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여기에 속한다. 韓愈의 문집 50卷 중에서 雜著·序·雜文 등 7권에 수록된 일부분이 문학적 산문인 것과 비교해 보아도 柳宗元이 문학적 산문의 창작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문체를 새로이 개발하거나 기존의 문체를 새롭게 변형한 점에서 말한 것이며, 기타 書信·贈序·祭文·碑誌 등에도 문학적 산문의 요소가 담겨 있음은 물론이다.

### 3. 결론

중국의 散文은 先秦 시대에 이미 내용과 형식 및 서술 기법 면에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다. 또한 문학·역사·철학 등 모든 방면의 견비를 추구했던 역대 지식인의 정신에 힘입어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며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문학·역사·철학을 포괄하는 散文의 특성은 한편으로 散文이 진정한 문학의 한 영역으로 발전하는 것을 더디게 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散文의 내용을 중시하다 보면 字句의 운용과 표현 기법을 무시하고 내용의 확실한 전달에만 치중하므로써 散文을 단지 기록과 서술의 도구로만 보기 일쑤였고, 반면에 散文의 예술적 표현을 중시하다 보면 너무 字句의 수식에만 치중하여 아무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일쑤였다. 散文의 발달 과정에 비추어 본다면 중국 散文이 記錄의 이거나 文章의인 속성을 뛰어넘어 문학과 예술성을 지향하여 발달해갔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종착지는 수필로, 중국에서는 ‘小品文’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小品文은 흔히 晚明 시대에 개화하여 1920·1930년대에 절정에 달했다고 일컬어지지만 결코 그 시대의 돌발적인 산물로 볼 수는 없다. 종적으로는 先秦 시대의 政論散文·哲理散文·歷史散文 등으로부터 이후

抒情散文·敘事散文·說理散文·敘景散文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발휘된 修辭와 서술 기법이 정제되어 나타난 것이며, 횡적으로는 詩·辭賦·駢文·詞 등 각 시대에 따라 특색있게 발달한 여타 문학에 힘입은 바가 크다. 특히 唐代는 先秦兩漢의 散文의 발전과 魏晉南北朝의 駢文의 발전을 두루 거친 시대로서, 散文과 駢文의 장단점을 취사보완하여 내용과 형식 및 문체 등에 있어서 새로운 발전을 가져와 중국 散文을 좀더 문학적 예술적인 방향으로 즉 수필의 방향으로 끌어당긴 시대이다. 이 시대에 주도적 역할을 한 작가가 韓愈와 柳宗元인데,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散文의 수필화라는 관점에서 보아 柳宗元의 역할을 더 높이 사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柳河東全集》，臺北，世界書局，民國 64.5.
- 《柳河東全集》，臺北，河洛圖書出版社，民國 63.12.
- 《韓昌黎文集校注》，臺北，華正書局，民國 71.2.
- 《韓昌黎集》，北京，商務印書館，1958.8.
- 《文選》，香港，商務印書館，1981.2.
- 《文心雕龍(上·下)》，新釋漢文大系 第64·65卷，東京，明治書院，昭和 58.4.
- 《舊唐書》，景仁文化社 影印本.
- 《新唐書》，景仁文化社 影印本.
- 朱世英·郭景春，《唐宋八大家散文技法》，武漢，長江文藝出版社，1989.3.
- 許世旭，《中國隨筆小史》，乙酉文庫 240，서울，乙酉文化社，1981.11.
- 羅宗強，《隋唐五代文學思想史》，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6.8.
- 褚斌杰，《中國古代文體概論》，北京大學出版社，1990.10.
- 吳小林，《柳宗元散文藝術》，山西，人民出版社，1989.10.
- 陳蒲清，《中國古代寓言史》，湖南，湖南教育出版社，1983.11.
- 陳蒲清 외 3人 選編，《中國古代寓言選》，湖南，湖南教育出版社，1985.3.
- 郭紹虞 主編，王文生 副主編，《中國歷代文論選(第二冊)》，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1.4.
- 黃雲眉，《韓愈柳宗元文學評價》，香港，龍門書店，1969.10.
- 任訪秋，《論韓愈和柳宗元的散文》，《新建設》，第九期，1957.
- 高海夫，《柳宗元散論》，陝西，人民出版社，1985.3.
- 吳文治，《柳宗元評傳》，北京，中華書局，1962.8.
- ，〈古典文學研究資料彙編柳宗元卷〉，臺北 影印本，〈柳宗元詩文集彙評〉，明倫出版社，民國 60.10.
- ，〈柳宗元簡論〉，北京，中華書局，1979.5.

- 章士釗,《柳文指要》,臺北 影印本,《柳文探微》,華正書局,民國 70.3.
- 林田慎之 著,譚繼山 譯,《柳宗元》,臺北,萬盛出版有限公司,民國 72.7.
- 劉光裕·楊慧文,《柳宗元新傳》,上海,人民出版社,1989.10.
- 孫昌武,《柳宗元傳論》,北京,人民文學出版社,1982.8.
- 劉文獻,〈柳宗元的遊記〉,臺北,《文學雜誌》,第六卷,第三期.
- 段醒民,《柳子厚寓言文學探微》,臺北,文津出版社,民國 74.7.
- 張 華 主編,蒙萬夫·魯歌 副主編,《中國現代雜文史》,西安,西北大學出版社,1987.9.